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0. 27.(화)

한국수자원공사,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기업(공사) 부문 대상 수상

- 전문 물관리 정보와 대중 트렌드 접목, AI·캐릭터 활용한 국민 눈높이 소통 성과 인정
- SNS 채널별 맞춤 전략으로 '물의 가치' 및 지역 상생 효과 확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0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업(공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성과와 국민 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KOSBI)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비롯해 전문가 심사, 사용자 투표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업(공사)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문적인 물관리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국민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의 차별화된 디지털 소통 전략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 등 주요 SNS 채널의 특성과 이용자층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공공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소통을 이어 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전문가 해설, 예능형 스토리텔링, 대표 캐릭터 '방울이' 등을 활용해 물의 가치와 공사의 역할을 국민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문가 인터뷰, 직원 지식 토크 등 지식·예능형 영상 콘텐츠 14편이 상반기에만 총 16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얻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3D AI 기술을 적용한 대표 캐릭터 ‘방울이’ 릴스와 일상 공감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접점을 넓혔다.

또한 전국의 아름다운 댐 수변공간과 지역 미식을 연계한 ‘댐플레이스’, ‘댐슬랭 가이드’, 감성 음향 콘텐츠 ‘Sound of Water’ 등을 제작해 물의 가치뿐 아니라 지역 상생 효과도 함께 확산시켰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 생활에 유익한 물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중심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홍보실 홍보계획부	책임자	부 장	김성현 (042-629-2231)
		담당자	차 장	장소영 (042-629-2244)





[사진] 10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사진 가운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업(공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